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  
- IMF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

The Financial Crisis Effects on the Family Life  
- A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IMF -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郭仁淑  
식품영양학과  
교수 宋堯淑  
의상학과  
부교수 金敬愛

Woosuk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Professor: In-Sook Kwak*  
Dept. of Food & Nutrition  
*Professor: Yo-Sook Song*  
Dept. of Clothing & Textile Associate  
*Professor: Kyung-Ae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경제적 환경과 가정생활변화 | V. 결론         |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factors related to the changes of family total income, total expenditures, housing maintenance costs, food expenditures and clothing expenditure. The data used for these purposes, was collected from housewives living in Jeonbuk area by questionnaire in May, 1998. Sample size of this data was 341 households. Statistics performed for the analysis were frequencies,

\* 본 연구는 우석대학교 학술지원비에 의해 수행된 것임.

percentage, mea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nthly income decreased by 370,000 won than last year. The variables contributing to decreasing income were job type of household head and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wives, the amount of total family current income, total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 perception of economic status. Second, monthly expenditure decreased by 24,000 won than last year. The variables related to decreasing expenditure were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wives and the perception of economic status.

Third, the variables related to their total household change were job type of household head, number of family, current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 perception of economic status. Finally, the variables associated with total satisfaction of family life were the amount of leisure time, the perception of economic status, wife's employment status and the educational attainment, the confirmity of family, and the amount of current household expenditure.

## I. 서론

지난 30여년간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룩한 한국은 1997년 11월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므로써 1980년 이래 가장 어려운 경제위기를 맞았다. 1960년대 초반 100달러 미만이었던 1인당 국민소득은 1995년에 10,037달러를 기록하면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였고, 1995년 12월에는 선진국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1997년 10월말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 홍콩, 대만의 금융시장을 거쳐 한국에 상륙해 급작스런 외환위기를 가져왔다(한국일보, 1998.2.5). 1997년 11월 정부는 정부차원의 달러조달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다. IMF의 자금지원은 자구노력의 이행조건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 확보의 방향으로 한국의 거시경제의 정책수립을 요구한다(조선일보, 1998, 1.22). 따라서 IMF의 구제금융 지원은 저성장, 고물가, 장기 경기침체, 단기 물가폭등, 실업 및 소비위축 등의 고통과 긴축을 수반하며, 국민생활의 기반을 바꾸어 놓았다.

외환위기에 이어 IMF의 구제금융체제로 들어선 지 1년여, 우리나라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경제의

감속성장과 이에 따른 대량실업의 고통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렸고, 중소기업체들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부도로 쓰러졌다. 또한 각 분야에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많은 실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충격의 강도에서 6.25사변에 버금갈 정도로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삼성경제연구소(1998)에서는 외환위기에서 출발한 IMF체제가 경제사함에 파급된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양식(life style)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즉 '우리'라는 개념이 변화되고, 경제우선의 마인드로 변화하고 이러한 마인드의 변화는 의식주/가족/직장/교육/문화/사회 부문에 행동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연일 실직 노숙자의 증가, 이혼의 증가 등 가족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고, IMF형 강도나 범주의 증가를 다루고 있다.

환경은 연구대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외적인 것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Hawley, 홍동식 외 역, 1995) 일반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에서는 생물학적 조건이 외에 사회문화적 조건들이 중요한 환경요소가 된다. 즉 인간환경은 자연적·인공적·사회적·상징적 차

원으로 구분되는데 상징적 차원은 전적으로 인간생태학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사회문화적 환경은 정치, 교육, 건강, 종교, 경제적 제도, 언어와 사회규범, 법률, 정책, 문화 패턴, 기술, 이웃, 지역사회를 포함한다(대한가정학회 편, 1998). 인간생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족은 개방적인 체계로서 그를 둘러싼 가정환경, 근접환경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환경중 실업의 확대와 소비의 감소로 이어진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가정생활에 경제적 위기로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환경으로서 최근의 IMF 관리체제로 인한 가정의 의생활·식생활·가정관리 측면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개인에게는 현재와 같은 변화와 혼돈의 와중에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의 경제상태의 변화로 인한 개인이나 가족의 심리상태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와 이들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을 정책입안자나 경제담당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II. 경제적 환경과 가정생활변화

### 1. 경제적 환경의 변화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학자에 따라, 접근하는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설명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생태학적인 측면<sup>1)</sup>에서의 가족을

둘러싸고 있으며 가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접환경으로서 최근의 국가경제적 위기에 의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가정생활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외환위기이후 변화된 경제상황을 보면 환율은 1997년 달러당 800원에서 2,000원까지 육박하기도 했으나 1998년중 1,390원 정도로 안정될 전망이며, 실업률은 2.7%에서 8.0%로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5%에서 9.5%로 오를 것이며, 경제성장률은 5.5%성장에서 -3.2%수준으로 뒷걸음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중산층을 붕괴시켜 버리고, 고실업에 의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파괴되고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고물가와 실질소득의 하락을 경험함으로써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저성장은 도약기회의 감소와 고금리에 의한 소득격차가 확대시킴으로써 계층간 갈등을 증대시키게 만든다. 또한 고풍률로 인해, 현실도피나 한탕주의 등의 부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경제우선 마인드에 의한 합리적인 소비 패턴으로의 변화나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삼성경제연구소, 1998)과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기도 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의 구매심리는 IMF 이전보다 극히 저조하여 국내 도·소매 판매율이 96년 7.0% 상승에 비해 97년 11월 1.0%, 12월 부터는 -4.9%, 98년 1월 -8.7%, 2월 -11.4%로 3개월간 마이너스 행진으로 계속 격감하고 있다.<sup>2)</sup>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산업시설이 집중된 타지역과는 달리 공무원 등 봉급생활자층의 비율이 높아 명예퇴직, 기구통폐합, 조직축소, 정원감축, 사무실 폐쇄 등의 조치로 이미 직장을 잃었거나 앞으로 직장을 잃을 봉급생활자층이 많아 사회환경의 변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인간과 환경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다루는 관점에서 개인 또는 가족구성원이 상호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각종 에너지와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이에 적응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적 관점으로 한다(대한가정학회 편, 1998).

2) 한국섬유경제 1998년 6월 3일자

## 2. 경제적 위기와 가정생활의 변화

동아일보와 한솔PCS의 공동조사에서 IMF를 맞아 가계의 지출규모를 줄였다는 주부가 조사대상의 90.9%였으며, 생활비를 10-20%를 줄였다고 응답한 주부가 40.1%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출 항목중 가장 많이 줄인 부분은 전체의 62.3%가 '외식비와 문화비'를 꼽았으며, '경조사비를 이미 줄였거나 줄일 생각'인 경우가 70.7%로 가급적이면 이전보다 주위의 경조사비를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고, 다음으로 교통비, 식비의 순이었다. '자녀교육비'의 경우는 1.2%정도만이 지출을 줄여 경제난에도 지속적인 자녀 교육열을 반영했다(동아일보, 1998, 2, 10-13).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변화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이후 우리 국민의 73%가 자가용 구입이나 진학, 집마련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소비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1998, 3,4).

우리나라는 구제금융이후 82%의 사람들이 외식비·식료품비를 아껴 생활비 줄이기를 실천하였으며, 외식빈도는 4.7회에서 1.2회로 급감했고, 1인당 외식비용은 13,700원에서 2,200원이 줄었다(중앙일보, 1998, 3,4).

구제금융체제 이후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자의 구매심리가 위축되어 의복비의 지출은 최소화하고 있다. 인터플래닝(중앙일보, 1998.3.3.)의 조사에 의하면 계속되는 불황속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은 의복구입비를 앞으로 40%이상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황으로 자녀양육비가 대폭 감소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보육형태는 이웃끼리 품앗이육아나 당번제로 자녀들을 보살피는 공동육아형태가 생겨나고 있다(서울신문, 1998, 3, 2).

그러나 이와 같이 외부적으로 들어나는 생활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제금융전과 비교해 볼때 현재는 사고나 가치관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가족관계나 의생활, 식생활, 소비생활 등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위기가 도래한 IMF 관리체제 이전인 1년전의 가정생활과 1년후인 현재의 가정생활상태를 비교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변화의 내용은 의생활·식생활·가정관리 측면에서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위기로 인해 의생활, 식생활, 가정관리의 내용은 1년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둘째, 의생활, 식생활, 가정관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셋째, 가정생활의 만족도는 1년전과 비교할 때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위하여 의생활의 변화는 의복구입, 의복관리, 의복비용의 감소를 위한 대처방안이 변화하였는, 식생활의 변화는 식품군별 식품섭취량과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간식, 편의식품, 건강보조식품, 외식이나 매식, 기호품의 섭취에 차이를 보이는가, 가정관리의 변화는 경제위기로 인해 가계의 소비지출에는 변화가 있는가, 가족관계의 측면에서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족결속력에 변화를, 가정자원관리 측면에서는 가정용품의 구매빈도, 주부의 계획적 관리, 가족의 여가시간이 변화하였는가를 측정하였다.

변화내용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지한 경우는 1점, 조금 감소한 것으로 인지한 경우는 2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지한 경우는 3점, 조금 증가한 것으로 인지한 경우는 4점,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인지한 경우는 5점을 주었다. 또한 가정생활만족도는 지난 1년간의 전반적인 변화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변화내용은 현저하게 불만족한 것으로 인지한 경우는 1점, 조금 불만족한 것으로 인지한 경우는 2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지한 경우는 3점, 만족도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인지한 경우는 4점, 만족도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인지한 경우는 5점을 주었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 의 및 측 정 방 법
<b>종속변수</b>	
의생활	의복구입, 의복관리, 의복비용의 감소를 위한 대처방안
식생활	식품군별 식품섭취량과 빈도, 간식, 편의식품, 건강보조식품, 외식 및 매식, 기호품 소비량
가정관리	가계의 소비지출, 가족관계, 가정자원관리 1=매우 감소 2=감소 3=변화가 없다 4=증가 5=매우 증가
가정생활만족도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불만족 3=변화가 없다 4=만족 5=매우 만족
<b>독립변수</b>	
가구주 직업	1=봉급생활 0=자영업/자유업/기타
가족수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수
주부의 취업여부	1=취업주부 0=전업주부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실제 교육년수
주부의 연령	주부의 연령(세)
현재의 가계총소득	가계의 총소득액(만원/월) (본인과 배우자, 가족원의 소득+부업소득+이자소득+부동산소득+연금, 보조금+이전소득+기타 소득)
1년전의 가계총소득	
가계총지출	가계의 총지출비(만원/월)
1년전의 가계총지출	1년전 가계의 총지출비(만원/월)
주택의 소유	1=자가 0=전세 및 월세
주택의 형태	1=공동주택 0=단독주택

가계의 소비지출 변화는 1년전의 지출비용과 현재의 지출비용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변수는 가구주의 직업, 가족수, 주부의 취업여부,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연령, 가계의 현재소득, 가계의 현재지출, 인지한 가계경제상태, 경제적 전망, 주택의 소유, 주택의 형태 등을 선정하였다.

연구문제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 2. 연구방법

###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연구자들이 준비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전북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1998년 5월 5일부터 25일 사이에 실시된 조사에 의해 수집된 것이다. 총 450부를 배부, 회수한 결과 부실한 응

답자를 제외한 341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자료중 가정생활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부가계를 선정하였다.

### 2) 분석방법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의생활·식생활·가정관리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의생활·식생활·가정관리의 변화와 가정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단변량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값이 10 미만으로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구주의 직업은 봉급생활자가 가장 많아 54.4%였고, 다음으로는 자영업/자유업이 42.2%, 기타/무직/은퇴가 3.3%였다. 가족수는 4명이 가장 많아 35.2%였으며, 다음은 5명으로 27.0%, 다음은 6명이 15.0%로 4.44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평균 4.05명)<sup>3)</sup>보다 가족수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중 전업주부는 47.3%였으며, 봉급생활자로 취업한 주부는 20.7%, 자영업/자유업에 종사하는 주부는 28.7%로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다. 주택의 소유는 자가 78.3%로 매우 높은 자가보유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택의 형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57.5%,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42.5%였으며, 주부의 교육수준은 평균 12.3년으로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주부가 가장

많았다. 가계의 총소득은 270.36만원이었으며, 이는 작년의 소득과 비교할 때 37.34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가계에 따라 소득의 변화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총지출은 184.88만원으로 이는 작년의 지출과 비교할 때 24.51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의생활의 변화

주관적으로 인지된 의생활의 변화는 다음 <표 3>과 같다. 사회의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의복구입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이 줄어든 품목은 정장류와 악세사리류로 소득의 감소에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나타났는데, 김성희(1996)는 정장류의 경우 의복을 구입할 때 소재의 고급성에 중점을 두고 선택한다고 하였는데 다른 품목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유행에 민감하여 사회환경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셔츠·블라우스와 신발류였으며, 가장 영향을

<표 2>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N= 341)					
범 주 변 수	빈도	%	범 주 변 수	빈도	%
가구주의 직업			주택의 소유		
봉급생활	179	54.4	자가	267	78.3
자영업/자유업	229	42.2	전세	63	18.5
기타/무직/은퇴	11	3.3	월세/기타	11	3.2
주부의 취업여부			주택의 유형		
취업	165	49.4	공동주택	196	57.5
비취업	169	50.6	단독주택	145	42.5
연 속 변 수	평 균	S.D.	연 속 변 수	평 균	S.D.
가족수(명)	4.44	1.21	주부의 교육수준(년)	12.24	2.96
가계총소득(만원/월)	270.36	226.94	변화된 소득(만원)	-37.34	91.61
가계총지출(만원/월)	184.88	88.44	변화된 지출(만원)	-24.36	52.93

\* 결측치에 의해 빈도에 차이가 있음

3) 한국의 사회지표(1997) 통계청

덜 받는 품목은 속옷류와 아동복이었다. 속옷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 필수품의 개념이며, 아동복은 아동의 신체 사이즈가 커감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계속 창출하게 되므로 다른 품목에 비해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의생활관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항목은 드라이클리닝 횟수로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드라이클리닝의 횟수를 가장 많은 비율로 줄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미장원 이용이나 장신구의 구입이며 가장 영향을 덜 받는 항목은 세탁횟수인데 이항목도 예전에 비해 조금 줄어든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세탁횟수가 늘어나면 세제나 세탁용수의 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으로 나타났는데 의류업체의 도산 등으로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하는 의복이 많아지면서 적은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알뜰시장을 이용하거나 아는 사람에게 물려입는 방법이며,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수선을 해서 입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삼성경제연구소, 1998). 이처럼 알뜰시장을 이용하거나 수선을 해서 입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방법은 의복비의 지출도 줄이고 재활용, 재사용을 함으로서 환경을 지키는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의생활의 변화

		(N=341)	
의생활		평균	표준편차
의복 구입	정장류	1.872	0.887
	셔츠, 블라우스류	2.176	0.838
	속옷류	2.341	0.799
	아동복	2.325	0.908
	신발류	2.219	0.854
	악세서리	1.919	0.906
의생활 관 리	세탁회수	2.577	0.765
	드라이클리닝	2.123	0.798
	미장원, 장신구	2.202	0.772
대처 방안	새로운 의복의 구입 자제	3.824	0.644
	가격이 싼 의복 구입	3.744	0.794
	알뜰시장이용, 물려입기	3.034	1.051
	수선해서 착용	3.258	0.969

의복구입의 감소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행태는 새로운 의복의 구입을 자제하는 것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가격이 싼 의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의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득 감소나 실직 등의 경제적 위기에 대해 의복비의 지출을 줄이는 형태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가격이 싼 의복의 구입

### 3. 식생활의 변화

식생활이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이외에 사회적·심리적 욕구까지 충족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 것이다(손경희 외, 1988). 한편 가계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가계의 소득 수준, 생활 수준, 경제적 복지를 측정할 수 있다(이기춘, 1991).

#### 1) 식품군별 식품섭취량의 변화

이에 실질소득이 크게 변화한 IMF 관리체제 전후의 식생활을 5가지 식품군으로 나누어 식품군별 식품섭취량의 변화로 알아본 결과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5가지 식품군의 섭취량이 평균 3점(IMF체제 전후에 변화가 없다) 이하인 2.54점으로 IMF관리체제 이후에 대부분의 식품 섭취량이 조금 감소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국 소비자 보호원(노영화, 1998에서 재인용)의 조사에서 IMF관리체제 이전과 비교하여 생활비중 가장 부담이 큰 비용이 식료품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1.4%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가계의 가장 필수적인 소비지출 항목인 식료품비의 변화를 97년 4/4분기에 비하여 98년 2/4분기의 식료품비의 지출증감율로 본 결과(박영숙, 1998) 총 식료품비는 -22.3%, 곡류 및 빵류가 -38.8%,

육류가 -8.6%, 채소류가 -13.0%, 과일류가 -24.8%, 외식비가 -24.8%의 지출증감율을 보여 모든 종류의 식료품비가 크게 감소되었다고 보고된 것과 함께 고려하여 보면 본 조사 결과에서 보여진 식품섭취량의 감소는 인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식품섭취량의 감소정도를 식품군별로 살펴보면 곡류 및 전분류, 고기·생선·계란·콩류, 채소 및 과일류의 평균 섭취량은 IMF관리체제 전후에 변화가 없다는 3점에 가까워(2.68-2.79) 이들 식품의 섭취는 비교적 적게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이들 식품군의 식품이 주식 및 부식을 구성하는 주요 식품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섭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우유 및 유제품과 유지 및 당류의 섭취는 비교적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평균 2.27-2.32점). 이것은 IMF관리체제 이후에 식품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식품(경향신문, 98년 3월 3일자)의 섭취가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IMF관리체제에 따른 경제사정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식생활 형태를 식료품비의 지출 구성비로 보기 위하여 1965년부터 1997년까지의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최현자, 1998) 주식비의 비율이 61.5%에서 11.1%로, 부식비는 33.3%에서 37.5%로, 외식비는 1.3%에서 33.5%로 나타나 주식비는 감소하고 외식비는 증가하여 IMF관리체제 이전인 1997년에는 식료품 지출부분중 외식비가 주식비나 부식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 조사 결과 주식 및 부식의 주요 구성 식품인 곡류 및 전분류, 고기·생선·계란·콩류, 채소 및 과일류의 섭취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은 IMF관리체제 이후의 식생활이 주식 및 부식 위주의 전통적인 우리의 식생활 형태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다량영양소의 섭취는 크게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우유 및 유제품과 유지 및 당류의 섭취가 크게 감소한 것을 감안 하면 식품군별 식품섭취량의 감소정도가 서로 다른 것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영양소 섭취량의 부족 또는 불균형 등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4〉 식품군별 식품섭취량의 변화

(N=341)

식품군	평 균	표준편차
곡류 및 전분류	2.79	0.46
고기·생선·계란·콩류	2.70	0.50
채소 및 과일류	2.73	0.49
우유 및 유제품	2.32	0.69
유지 및 당류	2.27	0.59
합 계	2.54	0.42

## 2) 식생활 행태의 변화

IMF관리체제 전후의 식생활 중 식품섭취량 이외의 식생활 행태를 간식 및 편의식품의 섭취빈도, 건강보조식품의 섭취량, 외식 및 매식의 빈도, 기호품 소비량 등으로 비교하여 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IMF관리체제 후에 감소하였다는 2점에 가까운 평균 1.92-2.24점으로 나타나(표5 참조) IMF관리체제 이후에 간식, 편의식품, 건강 보조 식품, 외식 및 매식, 기호품의 섭취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표 5〉 식생활 행태의 변화

(N=341)

식생활행태의 변화	평 균	표준편차
간식 섭취빈도	2.24	0.78
편의식품 섭취빈도	2.02	0.79
건강보조식품 섭취량	2.10	0.89
외식 및 매식 빈도	1.92	0.74
기호품 소비량	2.11	0.85
합 계	2.08	0.76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식품섭취량의 점수(평균 2.27- 2.79점)보다 낮아 간식, 편의식품 및 건강보조 식품의 섭취, 외식, 기호품 소비와 같은 식생활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식생활의 기능을 충족시켜 주는 이외의 식생활 구성 요소, 즉 인간의 심리적 욕구와 관련이 깊은 선택성 식행태로 인식하여 더 많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매식 및 외식의 섭취 빈도가 다른 어떤 식생활 행위보다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것은 소비자 보호원의 조사 결과(노영화, 1998에서 재인용) IMF관리체제에 따른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활비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지출비목이 식료품비이고, 생활비중 가장 우선적으로 감소시키려는 소비 지출 항목은 잡비(57.7%), 외식비(45.8%), 식료품비(38.5%)순으로 나타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1997년 전체소비지출 및 식료품비에 대한 외식비의 비율이 각각 10.9%(삼성경제연구소, 1998 재인용) 및 38.1%(최현자, 1998)로 외식이 준선택재로 분류되기도 하였던 것(양세정, 1991)으로 미루어 IMF관리체제 이전의 우리나라의 식료품 소비에는 거품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식의 횟수, 외식 음식값, 외식 장소 등 외식 행태는 검소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 4. 가정관리 측면의 변화

##### 1) 가계의 소비지출의 변화

1년전과 비교하여 가계의 월평균 비목별 지출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1년전 가계의

총지출이 209만원에서 현재는 평균 185만원 정도로 24만원 정도를 적게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와 비교할 때 평균 11.64%를 적게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중 식료품비가 월 4만 5천원정도 감소되어 가장 많은 액수가 감소하였으며, 다음은 저축액이 월 4만 2천원 정도, 피복·신발구입비가 2만 7천원, 배달음식을 포함한 외식비와 교양오락비가 각각 2만 5천원 정도씩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소비가 월평균 24만 4천원 정도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감소하지 않은 비목은 교통통신비가 1,400원 정도 감소, 광열·수도비가 2,400원 감소, 보건의료비가 2,700원 감소, 공교육비가 6,500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가정생활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의 지출이므로 더 이상 절약할 수 없는 항목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비액수의 변화보다 더 변화의 의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전년도의 지출보다 얼마나 많은 비율로 소비를 감소시켰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개별 지출비목중 식료품비의 지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소비지출의 감소비율에서는

<표 6> 비목별 지출의 변화

(단위 : 만원)

월지출비목	1년전 지출(IMF이전)	현재의 지출	변화된 지출	변화비율(%)*
식료품비	29.767	25.272	-4.495	15.10
외식비(배달음식 포함)	8.823	6.288	-2.535	28.73
주거비	13.167	11.597	-1.570	11.92
광열·수도비	11.886	11.647	-0.239	2.01
가구집기·가사용품	6.961	5.862	-1.099	15.79
피복·신발	12.260	9.579	-2.681	21.87
보건의료비(병원, 의약품)	6.253	5.984	-0.269	4.32
공교육비	42.077	41.423	-0.654	1.56
사교육비(학원, 과외)	22.598	21.209	-1.389	6.15
교양오락비	9.421	6.961	-2.460	26.11
교통통신비	14.410	14.266	-0.144	1.00
경조사비	12.837	11.397	-1.440	11.21
저축	70.553	66.343	-4.210	5.97
기타(이·미용비, 장신구)	7.520	6.184	-1.336	17.76
총지출	209.240	184.879	-24.361	11.64

\* : 1년전 소비액수에 대한 변화비율(변화된 지출/1년전 소비지출)

외식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식료품비가 15.10%가 감소된 것에 비해 외식비는 28.73% 감소되어 감소의 IMF로 인한 경제위기의 영향이 가장 큰 부분인 것이다. 또한 다음으로는 교양 오락비는 26.11%, 피복·신발비용이 21.87%, 이·미용비, 장신구의 17.76% 감소되어 경제위기의 영향이 큰 비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통통신비는 1%, 공교육비는 1.56%, 광열·수도비는 2.01%, 보건의료비는 4.32% 감소하여 이는 필수적인 지출비목인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지출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의 감소비율이 평균 감소비율보다 훨씬 낮은 5.97%인 것을 볼 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축하여 미래의 생활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 2) 가족관계와 가정자원관리의 변화

IMF관리 체제 이후 가족관계에서 부부간이나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의견차이는 변화가 없는 3점보다 약간 증가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결속력은 평균 3.623점으로 오히려 경제위기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자원관리의 측면에서는 가정용품의 구매빈도는 평균 1.966점으로 아주 많이 감소하였으며, 주부의 계획적 관리는 3.252점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족의 여가시간은 2.565점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위기로 인해 소비와 여가시간을 줄이고 알뜰하게 생활하기 위한 계획적 관리가 증가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

(표 7) 가족관계와 가정자원관리의 변화

(N=341)

		평균	표준편차
가족 관계	부부간의 갈등과 의견차이	3.097	0.611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의견차이	3.079	0.543
	가족결속력	3.623	0.858
가정 자원 관리	가정용품의 구매빈도	1.966	0.726
	주부의 계획적 관리	3.252	0.943
	가족의 여가시간	2.565	0.823

상으로 볼 수 있다.

## 5. 의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의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정장류, 셔츠 및 블라우스, 속옷, 아동복, 산발류, 악세사리 구입등의 요인이 포함된 의복구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계총지출의 변화( $\beta = .191$ )였으며, 다음으로는 가구주의 직업( $\beta = .117$ )이었다. 의복이란 착용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도록 디자인 되어지고, 어느정도 과시적인 소비, 과시적 낭비, 과시적 여유등에 의해 계층이 구분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지한 가정경제 상태와 같은 개인의 경제에 대한 만족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유태순, 1990). 이러한 이유로 의복구입은 식료품 구입과는 다르게 현재의 가계의 총소득보다는 현재의 가계총지출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직업은 봉급생활자 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복구입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의 영향이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생활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의 연령( $\beta = .123$ )이며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주의 직업( $\beta = .113$ )이었다. 의생활관리는 연령이 많은 주부일수록 알뜰하게 경제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의 직업이 봉급생활자일 경우 자영업자보다 더 알뜰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위기에 따른 의생활 대처방안으로는 새로운 의복구매의 자제, 가격이 싼 의복 구입, 알뜰시장 이용이나 물려입기, 오래된 의복의 수선등의 항목이었다. 이러한 대처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의 교육수준( $\beta = -.227$ )으로 의복구입이나 의복관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위기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

〈표 8〉 의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의복구입		의복관리		대처방안	
	b	$\beta$	b	$\beta$	b	$\beta$
가구주 직업	1.213	.117*	.484	.113*	-.424	-.093
가족수	.030	.009	.021	.014	.187	.100
주부의 취업여부	.140	.018	-.093	-.026	.168	.037
주부의 교육수준	.052	.038	-.026	-.014	-.149	-.227**
주부의 연령	.036	.082	.018	.123*	-.011	-.045
가계총소득의 변화	.001	.080	.002	-.000	-.000	-.055
가계총지출의 변화	.006	.191**	.003	.027	-.002	-.102
주택의 소유	-1.030	-.109	-.168	-.038	-.098	-.017
주택의 형태	.302	.039	-.058	-.016	-.376	-.081
상수	0.731		4.223		16.130	
F-Value	3.768***		2.948***		2.403**	
R-square	0.160		0.130		0.108	

\* p &lt; .05    \*\* p &lt; .01    \*\*\* p &lt; .001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복에 대한 관심이 낮고 의류제작에 관심이 많으므로(이인자, 1998) 새로운 의복의 구매를 자제하고 물려입기, 수선 등의 방법을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6. 식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 식품군별 식품섭취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의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식품섭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먼저 곡류 및 전분류의 섭취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의 교육수준( $\beta = .173$ ), 주택의 형태( $\beta = .168$ ), 주부의 취업여부( $\beta = -.136$ )로 나타났다. 곡류는 우리나라 식생활중 가장 중요한 주식이며, 다른 식품류에 비하여 상대적 가격이 싼식품이다(성진근, 1996). 이런 이유로 다른 어떤 종류의 식품보다 총소득, 총지출과 같은 가계경제상태에 관계없이 섭

취하는 식품이 곡류라고 생각된다. 한편 주부가 취업한 가정이 전업주부의 가정에서보다 곡류의 섭취가 더 적었으며,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사는 가구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보다 곡류 섭취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식품인 고기·생선·계란·콩류의 섭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지한 가계총소득의 변화( $\beta = .152$ )이며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수( $\beta = -.139$ ), 주택의 형태( $\beta = .124$ )였다. 이것은 1969년 부터 1995년까지의 국민영양조사 결과(보건복지부, 1997)에서도 경제발전과 함께 육류의 섭취가 점점 증가하였던 것 및 이 식품군에 속하는 식품중 고기·생선 등은 곡류군의 쌀이나 채소류에 비하여 가격이 일반적으로 비교적 더 높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 사정이 좋아질수록,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계일 경우 고기·생선·달걀·콩류는 더 많이 섭취하는 반면 가족수가 많을수록 더 적게 섭취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한다.

채소 및 과일류의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계총소득의 변화( $\beta = .179$ ), 주부의 교육수준( $\beta =$

142)으로 IMF관리체제 이후 경제 사정이 더 좋아진 가계일수록,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섭취량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과일류가 주식이나 부식의 개념 보다는 후식 및 기호 식품의 의미가 강한 선택성 식품으로 인식하는 것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의 경제에 대한 만족감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과일류와 부식의 개념이 큰 채소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더 진행 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량은 가계의 주부의 교육수준( $\beta = .159$ ), 주택의 소유( $\beta = .148$ )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유 및 유제품이 우리의 전통 식사 구성 및 주식·부식의 의미를 갖지 않고, 그 가격 또한 쌀 등 곡류의 주식 및 채소 등의 부식에 비하여 더 높으므로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집을 소유한 가계일 경우 섭취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아 우유의 영양 성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주부일수록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계일수록 섭취량이 증가한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유지 및 당류의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계총지출의 변화( $\beta = .157$ ), 가족수( $\beta = -.141$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총지출이 증가할수록, 가족수는 적을수록 유지 및 당류의 섭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관리체제 이후 식품가격의 상승률이 높았던 식품이 기름과 설탕이었던 점(중앙일보, 97년 12월 4일자)을 고려하면, 유지 및 당류의 섭취량은 가계의 경제사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식생활 행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식품섭취량 이외의 식생활 행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먼저 간식 섭취빈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주택의 소유( $\beta = .187$ ), 가계총지출의 변화( $\beta = .160$ ), 다음으로는 주부의 취업여부( $\beta = .134$ )가 영향을

<표 9> 식품섭취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곡류 및 전분류		고기·생선·계란·콩류		채소 및 과일류		우유 및 유제품		유지 및 당류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가구주 직업	-.032	-.033	-.085	-.002	-.072	-.073	-.063	-.047	.141	.104
가족수	-.054	-.137	-.049	-.139*	-.021	-.051	-.029	-.052	-.056	-.141*
주부의 취업여부	-.130	-.136*	-.134	-.052	-.028	-.029	-.108	-.080	.022	.018
주부의 교육수준	.030	.173*	.032	.089	.021	.142*	.036	.159**	-.009	-.042
주부의 연령	-.003	-.054	-.004	-.085	.001	.025	-.006	-.082	.007	.097
가계총소득의 변화	.0001	.074	.0001	.152*	.0001	.179**	.0001	.035	-.000002	-.001
가계총지출의 변화	.0001	.036	.0005	.056	.0002	.046	.001	.013	.0001	.157**
주택의 소유	.069	.059	.104	.087	.076	.064	.147	.148*	-.024	-.017
주택의 형태	.163	.168*	.164	.124*	.105	.106	.047	.035	.171	.102
상수	2.632***		2.341***		1.963***		1.556**		1.388**	
F-Value	2.541**		3.532***		1.856*		3.670***		3.473***	
R-square	0.128		0.170		0.097		0.176		0.168	

\* p < .05    \*\* p < .01    \*\*\* p < .001

미쳐 주택을 소유한 가계가 소유하지 않은 가계보다 간식 섭취빈도가 높았으며, 가계총지출이 증가할수록 주부가 취업한 가계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간식이 일상식의 개념보다는 선택성 식사라고 생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편의식품 섭취 역시 가계총지출의 변화( $\beta = .139$ ), 가족수( $\beta = -.144$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총지출이 증가할수록, 가족수는 적을수록, 반조리되어 생식품보다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의식품의 섭취가 증가했다고 본다. 이것은 패스트 푸드를 찾는 가장 큰 동기가 간편성이라고 보고된 것(전미정 외, 1992)과 경제성장 및 소득수준의 증가는 외식산업을 발달시킨다는 보고(모수미, 1994)와 일치한다.

건강보조식품의 섭취에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는 가계총지출의 변화( $\beta = .166$ )로 가계지출이 많을수록 건강보조식품의 섭취가 많았다. 건강보조식품의 섭취는 가정의 수입보다는 전체적인 지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외식 및 매식은 주부의 연령( $\beta = .201$ )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계총소득

의 변화( $\beta = .145$ )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횟수가 증가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외식이 준수택재이며 식생활의 거품요소인 것과 맥을 같이 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담배, 커피 및 술과 같은 기호품 소비량에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는 가계총지출의 변화( $\beta = .170$ ), 주택의 형태( $\beta = .149$ )였으며, 가계총지출이 증가할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계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계보다 기호품의 소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사회의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식품섭취량 이외의 식생활 행태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가계총소득이나 지출이 증가할수록 간식 및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편의식품의 이용, 외식 등을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김정현(1992)등의 연구에서 식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치관이라고 보고된 것과는 다른 결과로써 IMF관리체제에 따른 경제위기가 식행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10〉 식생활 행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간식 섭취빈도		편의식품 섭취빈도		건강보조식품 섭취량		외식 및 매식 빈도		기호품 소비량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가구주 직업	.027		-.011		-.158		.103	.069	.127	
가족수	-.032	.017	-.080	-.070	-.002	-.086	.002	.003	.004	.0751
주부의 취업여부	.141	-.049	.102	-.144*	.029	-.003	.020	.014	-.041	.006
주부의 교육수준	.005	.134*	.023	.103	-.003	.016	.019	.071	-.0005	-.024
주부의 연령	.003	.018	.008	.080	-.003	-.009	.016	.201**	-.010	-.002
가계총소득의 변화	-.0001	.029	.0001	.089	-.0003	.047	-.0002	.145*	-.0003	-.098
가계총지출의 변화	.0003	-.023	.0004	.100	.001	-.098	.0004	.060	.001	-.085
주택의 소유	.248	.160*	-.085	.139*	-.006	.166*	.047	.026	-.130	.170**
주택의 형태	.142	.187**	.271	-.044	.168	-.003	.154	.102	.287	-.063
상수	.890	.088	.684	.121	1.581	.091	.006		2.315**	.149*
F-Value	3.547***		2.506**		1.279		2.195**		1.302	
R-square	0.170		0.128		0.091		0.114		0.078	

\* p < .05    \*\* p < .01    \*\*\* p < .001

7. 가정관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가계총지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계총지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가계총지출의 변화는 가계총소득의 변화( $\beta = .323$ )와 가구주의 직업( $\beta = .171$ )이 영향을 미쳤으며, 가계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주의 직업이 봉급생활자일 때 가계총지출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계총소득의 변화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소비지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자영업가계가 경제위기를 더욱 실감하여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 가계총지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가계총지출	
	b	$\beta$
가구주 직업	10.868	.171*
가족수	-1.441	-.034
주부의 취업여부	.422	.008
주부의 교육수준	-1.815	-.098
주부의 연령	-3.697	-.023
가계총소득의 변화	.169	.323***
주택의 소유	3.498	-.033
주택의 형태	-3.444	
상수	-23.290***	
F-Value	2.695***	
R-square	.154	

\*  $p < .05$     \*\*  $p < .01$     \*\*\*  $p < .001$

2) 가족관계와 가정자원관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족관계와 가정자원관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가족관계의 변화에는 가족수( $\beta = .285$ )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는 주부의 연령( $\beta = -.269$ ), 주택의 소유( $\beta = .181$ ), 가계총지출의 변화( $\beta = .149$ ), 가계총소득의 변화( $\beta = -.134$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가 양호해졌으며, 주부의 연령이 적

을수록,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가계총지출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가 양호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총소득은 감소한 경우에 가족관계가 양호해진 것으로 보아 가정생활의 다른 측면과는 달리 경제위기의 영향이 오히려 가족을 결속시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가정자원관리의 변화에는 가구주의 직업( $\beta = .208$ )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는 가계총지출의 변화( $\beta = -.125$ )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자원관리는 가구주의 직업이 자영업자보다는 봉급생활자일 때, 가계총지출이 감소할수록 가정자원관리가 양호한 상태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가족관계와 가정자원관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가족관계		가정자원관리	
	b	$\beta$	b	$\beta$
가구주 직업	.226	.070	.339	.208**
가족수	.362	.285***	-.023	-.022
주부의 취업여부	-.195	-.060	-.076	-.029
주부의 교육수준	-.009	-.016	-.023	-.050
주부의 연령	-.049	-.269***	-.003	-.023
가계총소득의 변화	.00001	-.134*	-.0004	-.075
가계총지출의 변화	.002	.149*	.0001	-.125*
주택의 소유	.678	.181**	.369	.114
주택의 형태	-.323	-.100	.020	.007
상수	8.346***		10.923***	
F-Value	3.591***		1.995*	
R-square	.134		.079	

\*  $p < .05$     \*\*  $p < .01$     \*\*\*  $p < .001$

9. 가정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반적인 가정생활의 만족도는 1년전과 비교할 때 2.48점으로 약간 낮아졌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표 13>과 같다.

가정생활만족도는 가계총지출의 변화( $\beta = .285$ )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년전보다 가계총지출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생활만족도의 변화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경제적 상태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문숙재 외(1985), 임정빈(1988)의 연구결과에서 경제생활이 가정생활만족도의 주요요인이라는 지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표 13〉 가정생활만족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가정생활만족도	
	b	$\beta$
가구주 직업	.099	
가족수	.052	.067
주부의 취업여부	.022	.086
주부의 교육수준	.009	.015
주부의 연령	-.006	.033
현재의 가계총소득	.0002	-.073
현재의 가계총지출	.002	.072
주택의 소유	-.077	.285**
주택의 형태	.023	-.043
상수	1.256**	.015
F-Value	6.063***	
R-square	.208	

\* p < .05    \*\* p < .01    \*\*\* p < .001

### V. 결론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근접환경으로서의 사회의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가정의 의생활·식생활·가정관리,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생활의 변화에서는 사회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 의복구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정장류와 악세사리류로 소득의 감소에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나타났다. 가장 영향을 덜 받는 품목은 속옷류와 아동복이

었다. 의생활관리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항목은 드라이클리닝 횟수였으며, 다음은 미장원 이용이나 장신구이며 가장 영향을 덜 받는 항목은 세탁횟수였다.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새로운 의복의 구입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식생활의 변화에서는 곡류 및 전분류, 고기·생선·계란·콩류, 채소 및 과일류의 섭취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우유 및 유제품과 유지 및 당류의 섭취가 크게 감소하였다. 식생활 행태에서는 IMF관리체제 이후에 간식, 편의식품, 건강 보조식품, 외식 및 매식, 기호품의 섭취 소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계의 소비지출의 변화는 월평균 24만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중 식료품비가 월 4만 5천원정도로 가장 많은 액수가 감소하였으며, 다음은 저축, 피복·신발구입비, 배달음식을 포함한 외식비와 교양오락비가 감소되었으며, 전반적인 소비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감소하지 않은 비목은 교통통신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였다. 그러나 전년도 소비액수에 대한 감소비율을 살펴보면 외식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이·미용비, 장신구의 순으로 지출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의 영향이 큰 비목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통통신비, 공교육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는 감소비율이 아주 적어 필수적인 지출비목인 것을 알 수 있다.

4. IMF관리체제 이후 가족관계에서 부부간이나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의견차이는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가족결속력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자원관리 측면에서는 가정용품의 구매빈도는 아주 많이 감소하였으며, 주부의 계획적 관리는 증가하였고, 가족의 여가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의생활중 의복구입의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에는 가계경제상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으며, 다음으로는 가구주의 직업, 주부의 연령이나 교육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처방안은 주부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의복구입감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식품섭취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가

경제상태로 일상식을 구성하는 주·부식중에서도 곡류보다는 일반적으로 값이 비싼 고기군류와, IMF 경제위기로 인한 가격상승폭이 컸던 유지 및 당류와 우유류의 섭취에 영향을 미쳤다. 식생활 행태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가계 경제상태로 가계총소득이나 지출이 증가할수록 간식 및 건강보조식품의 섭취, 편의식품의 이용, 외식 등을 더 많이 하였다.

7. 가계총지출의 변화는 가계총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주의 직업이 봉급생활자일 때 가계총지출이 증가하였다. 가족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기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가계총지출이 증가할수록 가족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측면과는 달리 경제위기의 영향이 오히려 가족을 결속시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적은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직업이 자영업자보다는 봉급생활자일 때, 가계총지출이 감소할수록 가정자원관리가 양호한 상태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8. 가정생활만족도는 1년전보다 가계총지출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정생활만족도의 변화는 다른 어떤 요인보다 경제적 상태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대상이 전북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부 특수한 지역적 특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추후 전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바람직할 것이며, 이외에 가족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요인들을 독립변인에 추가시킨다면 각 가정의 독특한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전북지역에 실직자 가정이 많지 않았고, 실직자 가정은 일반가정의 변화와는 판이한 상황이 될 것이므로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전북지역의 경우 산업시설이 집중된 타 지역과는 달리 공무원 등 봉급생활자의 비율이 높아 화이트칼라들의 대량실직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실직자 가정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식품군별

식품섭취량의 감소정도가 서로 다른 것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영양소 섭취량의 부족 또는 불균형 등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외식횟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IMF관리체제 이전의 우리나라의 식료품 소비에는 거품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식의 횟수, 외식 음식값, 외식 장소 등 외식 행태는 검소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알뜰시장을 이용하거나 수선을 해서 입을 등의 대처방법은 의복비의 지출도 줄이고 재활용, 재사용을 함으로서 환경을 지키는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개인에게는 현재와 같은 변화와 혼돈의 와중에서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위해 결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의 경제상태의 변화로 인한 개인이나 가족의 심리상태의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와 이들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을 정책입안자나 경제담당자들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켜 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향신문. 1998년 3월 3일자.  
 김성희·김경애(1996). 소비자 의복관여와 소재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197-208.  
 김정현·이민준·양일선·문수재(1992). 한국인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7(1), 1-8.  
 노영화(1998). 소비행태의 변화. *광고정보* 5월호, 23-25.  
 대한가정학회(1998). *인간과 생활환경*. 서울: 학지사.  
 모수미(1994). *한국 외식문화의 발달과정*. 한국식생



- 활문화학회지 9(2), 181-188
- 문숙재·정은숙(1995). 도시가정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3), 149-167.
- 박영숙(1998). 실직자 가정을 위한 대처방안-식생활. 대한가정학회 제51차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56-68.
- 보건복지부(1997). 1995년 국민영양조사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 삼성경제연구소(1998). IMF 충격, 그 이후.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성진근(1996). 국가 경제구조와 식량문제. 1996년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춘계 학술대회 초록집, 14-39.
- 손경희·문수재·이민준·최은정·황혜선·이명희(1988). 도시 주부의 식품소비 변화와 미래의 식생활 향상을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53-66.
- 양세정(1991). 도시가계의 소비지출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1970-1990년을 중심으로). 소비생활연구 8, 54-67.
- 유태순(1990). 의복의 언어, 서울: 경춘사.
- 이기춘(1991). 가정경제학. 서울: 교문사, 50-60.
- 이인자(1998).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만족-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미정·김복희·이경신·모수미(1992). 패스트 푸드, 식당 이용자의 식사행동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2), 15-30.
- 중앙일보. 1997년 3월 3일자.
- 지영숙(1998). 현대 가족생활 설계론. 서울: 학지사.
- 최현자(1998). 가계의 식료품소비행태와 개선방향. 1998년도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12-21.
- 한국의 사회지표(1997). 통계청.
- 홍동식·강대기·민경희 역(1995). 인간생태학. 서울: 일지사.
- 홍성희(1998). 노인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만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07-124.